

# 최태원, 유럽서 '경제협력·ESG·부산엑스포' 광폭행보

(SK회장)

대통령 특사로 유럽 3개국 방문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호소  
덴마크 에너지 기업과 연쇄 회동  
포르투갈·스페인 경제협력 확대

최태원 SK회장이 유럽을 상대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6일 SK그룹 측은 대통령 특사로 유럽 3개국(스페인·덴마크·포르투갈)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각국 주요 기업인과 잇달아 만나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특사 자격으로 3개국 총리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SK그룹 회장으로서 각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 등 경제협력 확대의 첨병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이번 출장이 신재생에너지 강국 방문인 점을 고려, 최 회장의 비즈니스 미팅도 덴마크의 베스타스, 포르투갈의 갈프 등 각국 에너지 분야 주요 기업과의 회동에 중점을 뒀다.

◆ 덴마크 친환경 에너지 기업과 연쇄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베스타스(Vestas)의 헨릭 앤더슨(Henrik Andersen) CEO(사진 왼쪽)를 만나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

회동

우선 최태원 회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헨릭 앤더슨 CEO를 만났다.

최 회장은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베스타스와의 협력 확대를 언급하며, 한국을 허브(Hub)로 양사가 함께 베트남 등 동남아로 진출하는 한편, 해상풍력 뿐만 아니라 수전

해기술을 통한 그린수소 개발 및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했다.

헨릭 앤더슨 CEO는 “급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사업 허브로서 한국이 최적의 국가”라며, “SK와의 해상풍력 분야 협력을 진전시키는 한편 향후 그린수소 개발 및 친환경 전기(Green Electricity) 기반의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회장은 같은 날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 CIP의 야콥 폴슨 CEO와도 만나 해상풍력,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친환경 에너지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최 회장은 CIP 측에 해상풍력을 넘어, 이를 통한 안정적인 수소 생산 및 해외 수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덴마크에서의 비즈니스 미팅에 대해 SK 관계자는 “한국과 덴마크 정부간 구축된 ‘녹색성장동맹’의 기반 위에 기업 차원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해상풍력·수소·ESS·배터리 등 그린 밸류체인 전반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양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도 중형무진 최태원 회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에너지 종합기업 갈프의 필리페 시우바 CEO와 면담을 가졌다.

최 회장은 포르투갈 최대의 석유 및 가스 기업인 갈프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SK 그룹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배터리·수소·SMR 등 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전반에서 협력 기회를 발굴해 가져

고 제안했다.

필리페 시우바 CEO도 갈프사가 SK와 유사한 사업 플랫폼 및 포트폴리오 전환 전략을 갖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사는 향후 SK와 해상풍력, 리튬정제, 바이오 연료 개발, EV 충전시설 등으로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SK 관계자는 “한국과 포르투갈의 최대 에너지 기업간 최고위급 만남이 이뤄짐으로써 양국의 에너지 전환과 녹색성장 비전을 민간 차원에서 선도하며 경제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스페인 최대 에너지기업인 렘솔과 SK그룹간의 오랜 신뢰 구축의 결과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고급순환유 생산 합작법인 일복(ILBO C)의 사례를 소개하며, 양국간 적극적인 상호투자 및 인력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SK 관계자는 “기업인이 특사 역할을 맡게 되어 엑스포 유치 지원을 계기로 유럽과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ESG 등을 매개로 글로벌 시장을 지속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저시력자 위한 '릴루미노 웨어러블 기기' 시범 보급

삼성전자

장애인복지관 등에 30여대 무상제공  
장애 정보·유형 따라 개별 맞춤 설정

삼성전자 기술력이 저시력자에 빛을 되돌려준다.

삼성전자는 최근 '릴루미노' 기술로 만든 웨어러블 기기 30여대를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승환 배우 겸 감독에 무상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릴루미노는 '빛을 다시 돌려준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보조 솔루션으로, 스마트폰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릴루미노 앱과 안경 타입 웨어러블 기기 글래스로 구성된다.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앱에서 저시력 장애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글래스 디스플레이로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글래스와 USB



삼성전자가 만든 릴루미노 웨어러블 기기

케이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중 90% 수준인 잔존 시력이 남아있는 저시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고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촉지감각'을 활용한 UX도 적용했다. 글래스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개선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개별 맞춤 설정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삼성서울병원과 협력을 통해 릴루미노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 안전이 검증되었고 별도 시각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통해 기존 상용제품 대비 성능·피로도·사용성도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다.

송승환 감독은 “어렵듯이 형체만 보이던 사람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며, “언어를 하면서 상대 배우를 잘 알아보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는데, 리허설 등의 과정에서 릴루미노를 사용하면 배우의 얼굴과 표정을 느낄 수 있어 연기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정옥동 관장은 “시각장애인들이 릴루미노를 착용하자 또렷하게 글씨를 보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면서 “선명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번 보급 사업을 운영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랜 연구를 거듭해 릴루미노를 개발했다. 2016년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과제에 채택해 2017년 기어 VR을 활용한 앱을 개발, 2018년 처음 콘셉트 기기를 개발했다. 이후 개선을 통해 착용감과 피로도 등 편의성을 높여왔다.

릴루미노 과제를 시작한 조정훈 연구원은 “시각장애인들 92%가 여가활동 1 순위로 TV 시청을 꼽을 정도로 TV 의존도가 높지만, 실제 시청 접근은 어렵다”는 조사결과를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릴루미노 연구는 현재 삼성리서치에서 ▲안전성과 사용성 ▲품질 확보를 위한 글래스의 전과 인증 ▲임상시험 ▲SW 검증 ▲신뢰성 시험과 사용자 평가 등 끊임 없는 기술 고도화가 진행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2월 수입차 2.1만대 BMW 6381대 '1위'

수입차 시장이 큰폭으로 성장했다. 독3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일본 브랜드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2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가 2만 1622대였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동기(1만9454대)보다 11.1%, 전달(1만6222대)보다도 33.3%나 증가한 수치다. 누적으로도 3만7844대로 전년 동기(3만6815대)보다 2.8% 많아 분명한 성장세를 확인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6381대로 다시 1위를 되찾았다. 메르세데스-벤츠도 5519대, 아우디가 2200대로 '독3사' 강세는 이어졌다.

일본 브랜드도 회복세를 본격화했다. 렉서스가 1344대, 토요타가 695대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83.5%, 149.1% 늘었다. 국가별로는 2200대, 전년(1009대)보다 2배 이상이 됐다. 점유율도 10%를 넘어섰다.

포르세는 1000대를 돌파하며 슈퍼카 인기를 증명했다. 2월 판매량이 1123대로 전년(777대)과 전달(726대) 대비 50% 안팎 성장률을 보였다. GM의 브랜드 지엠씨도 새로 수입차 시장에 합류했다.

연료별로는 전기차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1272대로 전년보다 153.9% 많았다. 하이브리드도 31.4% 성장했다. 반면 디젤이 37% 줄었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도 51.8% 감소했다.

/김재용 기자

## 제주항공-플라나, 'AAM 연구' 업무협약

안정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협력

제주항공이 국내 AAM 기체 제작사인 플라나(PLAN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항공과 플라나는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서울지사서 양 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항공 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분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

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항공과 플라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과정인 연구실증을 협력을 통해 기체안전성, 통합운용성, 소음측정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지역항공모빌리티(RAM)를 포괄하는 개념인 선진 항공 모빌리티(AAM) 분야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산업 연구과제 공

동수행, 산업 종사자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항공 운송사업자로서 항공 경영의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며 “특히 하이브리드 기반의 AAM을 개발하고 있는 플라나와의 업무 협약은 제주항공이 UAM을 넘어 AAM까지 사업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에 ▲단일분야 연구실증과 ▲컨소시엄

통합실증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한다. 단일분야 연구실증에서는 플라나와 협업을 통해 운항자 시스템과 운영 절차를 연구하고, 컨소시엄 통합실증에서는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UAM 이해관계자 간 통합 운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플라나는 국내 유일 하이브리드 기반 수직이착륙 전기 항공기 개발 기업으로 2028년 상용화 목표로 조종사와 승객을 최대 7명까지 수용하고 500km 이상 운항할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